



김 옹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베이비 붐 세대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황이다.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30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2010년 현재 고령화율은 11.0%로 멕시코(5.9%), 터키(6.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현재 우리보다 노인인구 비중이 많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나라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가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는 심각한 저출산에 기인하고 있는데, 2010년 현

재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출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이들이 곧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2010년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만,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퇴 후 퇴직금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남은 금융자산이 은퇴 전 연봉에 비해 적어 노후의 삶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급속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경험해 온 세대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이들의 차별화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야 한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다년간 축적된 수련기술과 노하우가 폐기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이 소멸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가 소비의 주된 주체가 아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복지 문제를 넘어서 고용률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져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축률 하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적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 역시 저축률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확정하고,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동 계획은 베이비 붐 세대로 고령화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마련 및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하여 본 보건복지포럼 작업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러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바쁜 중에도 귀중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 연구자들과 본 포럼이 발행되기 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보건복지**